

## 중국영화 속 농민공의 모습을 통해 본 중국사회의 현실 고찰

- 영화 <盲井>과 <泥鰱也是魚>를 중심으로 -

박재형\*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영화 스토리에 나타나는 농민공의 비참한 삶과 죽음
3. 자본주의병폐 속에 사라져가는 인간본성에 대한 시각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세계적인 경제 불황 여파에서도 오늘날 중국경제는 여전히 연 8%대의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다. 개혁·개방 30년의 경제성장이 실로 눈부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경제의 놀라운 고속성장의 원동력은 농민공(農民工)<sup>1)</sup>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값싼 노동력은 대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있어 노동비용의 절감과 인력공급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 수출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토대가 되었다.

\* 영남대학교 중국 언어문화학부 시간강사 ( pjh9110@hanmail.net )

1) 이민자, 《중국 農民工과 국가-사회 관계》(서울:나남출판, 2001), 16~17쪽에서는 “農民工 출현 배경을 개혁기 도시와 농촌의 관계변화, 연해와 내륙의 관계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農民工 문제는 개혁기 다양한 ‘관계의 변화’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고리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 분석하고 있다.

‘농민공(農民工)’은 1978년 중국 공산당 제 11기 3중전회 이후 중국 정부가 실시한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농촌지역의 향진기업(鄉鎮企業)<sup>2)</sup>이 대규모 농촌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면서 출현하였다. ‘농민공’이라는 명칭은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984년 중국 사회과학원의 ‘사회학통신(社會學通信)’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sup>

그러나 향진기업이 발달하지 않아 非農業 분야에 취직이 힘든 중국 대부분의 내륙농촌지역에 잉여 노동력은 북경이나 상해와 같은 대도시나 연해지역의 공업도시로 대규모의 인구이동의 潮流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民工潮라 부르는데 民工潮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을 1980년대에는 이들이 맹목적으로 이동한다는 시각에서 盲流라 했고, 1990년대에는 農民工 혹은 民工이라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역격차문제, 도시와 농촌사이의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소득격차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즉, 농민공이란 개혁개방 후 호적의 신분이 여전히 농민이고 자기 소유의 농토도 있으나 농촌으로부터 이탈하여 다양한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며, 임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것이다.<sup>5)</sup>

중국에서 農民工은 戶口制度<sup>6)</sup>라는 도시 시민권 제한정책으로 인하여

2) 향진기업(鄉鎮企業)은 농촌지역에서 공업, 운수업, 상업 등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을 하는 집체소유적 합작기업 또는 개인기업을 총칭하여 향진기업이라고 부른다. 향진기업에는 진관기업(鎮辦企業), 향관기업(鄉辦企業), 촌관기업(村辦企業), 호관기업(戶辦企業), 연관기업(聯辦企業) 등의 종류가 있다. 공봉진의 《중국지역연구와 현대중국의 이해》(부산:도서출판 오름, 2007), 153쪽을 참고.

3) 황경진, <2009년도 중국농민공의 취업실태>, 《국제노동브리프》(2010.6), 101쪽.

4) 이민자, 《중국 農民工과 국가-사회 관계》(서울:나남출판, 2001), 20쪽.

5) 이성철·이치한, <조화사회와 농민공의 현실>, 《중국연구》45(2010.1), 170쪽 부분에서 이성철, 이치한은 한국의 7,80년대 도시 이주현상과 비교해 “중국의 농민공은 한국의 산업화 초기 도시로 유입된 다양한 농민층들의 성격과 달리한다. 즉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도시의 피고용자라는 성격은 동일하지만, 이들 농민공들은 호적의 신분상 여전히 농민이며 인구구성의 면에서도 농촌인구로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과 특징들이 한국의 그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6) 호구제도(戶口制度)에 관해서는 이민자의 《중국 農民工과 국가-사회 관계》(서울:나남출판, 2001), 63~65쪽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

다른 사회의 이농민과 사회적 위치가 다르다. 첫째, 농민공은 도시의 이방인으로서 법적 위치가 모호하여 착취당하기 쉽다. 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비슷하다. 둘째, 농민공은 두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다. 즉, 농민공은 도시에서 직업을 구하고 장기 거주하고 있으나, 법적 신분은 여전히 농민으로 농촌공동체에 속해 있다.<sup>7)</sup>

농민공은 대도시의 호적을 갖지 못하며 그에 따른 도시 내 거주, 교육, 의료혜택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고 그 자녀들 역시 도시호적을 갖지 못하여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공 문제는 현대 중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 및 저임금, 고된 노동으로 인한 연쇄투신자살 및 잦은 파업 등의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의 중국의 노사관계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전의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힘든 노동으로 돈을 벌어 모은 뒤, 고향인 농촌으로 돌아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큰 목표였다면, 오늘날 농민공들은 (특히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소위 ‘신세대 농민공’) 대부분이 대도시의 현대화된 문명생활에 익숙해져 다시 농촌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농촌사회에 노동력 부족 현상과 도시 내 각종 범죄문제로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혹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기존의 ‘3농(三農)문제’에 더해 ‘4농(四農)문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sup>8)</sup> ‘3농(三農)문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민생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농업·농민’ 문제를 의미하는데, 농업이 부실하고 농촌이 낙후하고 농민의 처지가 열

---

서 1950년대 말 戶口制度(혹은 戶籍制度라고도 함)를 만들어 전국민을 농민과 시민으로 구분하고, 농민의 도시로의 이동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도시에서 계획경제, 배급제도의 실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시장의 논리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는 사회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에도 戶口制度에 의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정부로부터 戶口를 취득해야만 어떤 지역에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7) 이민자, 《중국 農民工과 국가-사회 관계》(서울:나남출판, 2001), 65쪽.

8) <수퍼파워 중국의 內面을 읽다, (3)사회갈등의 핵, 농민문제>, 《조선일보》(2011.1.11) [http://www.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11/2011011102240.html](http://www.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11/2011011102240.html)

악하다는 것이다. 협소한 농지, 낮은 농업생산성, 호주제를 통한 도시·농촌분리정책 등으로 인한 도농(都農)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다.<sup>9)</sup>

오늘날 중국의 핵심적 지배이념인 조화사회(和諧社會)와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은 이러한 농민공의 문제가 중국정부에게도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국사회의 기층세력이자 소외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농민공 문제에 대해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두 편의 영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영상 속에 드러나는 감독의 중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문제의식제기를 통해 절망적이고 비참한 농민공들의 현실과 그 속에서 엿보이는 희망의 모습들을 영화 속 장면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영화 스토리에 나타나는 농민공의 비참한 삶과 죽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 편의 영화는 리양(李楊)<sup>10)</sup>의 <맹정(盲井), 2003>과 양야저우(楊亞洲)<sup>11)</sup>의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鰻也是魚), 2006>이다. 이 두 편의 영화는 중국 농민공의 비참하고 고통스런 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병폐 속에서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중국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인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구도를 지니고 있다.

9) '3농(三農)문제'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은 공봉진의 《중국지역연구와 현대중국의 이해》(부산:도서출판 오름, 2007), 155쪽을 참고.

10) 1959년 서안에서 태어난 리양(李楊)은 독일에서 문학과 예술을 공부했으며, <맹정(盲井), 2003> 이전 세편의 다큐멘타리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대표작으로 <맹정(盲井), 2003>과 <맹산(盲山), 2007>이 있다.

11) 1956년 하얼빈에서 태어난 양야저우(楊亞洲)는 TV드라마 감독으로 더 유명하다. 대표작으로는 <메이리의 큰 발(美麗的大腳), 2002>, <홀날리는 눈꽃(雪花那個飄), 2006>,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鰻也是魚), 2006> 등이 있으며 현재 평샤오강의 <당산 대지진(唐山大地震), 2010>과 유사한 지진을 주제로 한 영화 <큰 태양(大太陽)>을 촬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sup>12)</sup> 또한, 두 영화 모두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sup>13)</sup>

리양(李楊)의 <맹정(盲井), 2003>이 화려한 도시속의 건설현장이나 노동현장이 아닌 암울하고 막막한 탄광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반면, 양야저우(楊亞洲)의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鰍也是魚), 2006>는 북경이라는 대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농민공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배경은 다르지만 두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탄광의 농민공이나 도시의 건설현장 농민공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비참하다.

<맹정(盲井), 2003>의 주인공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기본적인 인성조차 없는 냉혹한 농민공의 모습과 그 속에서 일말의 가책을 느끼는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鰍也是魚), 2006>에서는 좀 더 따뜻하고 인간미 있는 농민공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들 수 있겠다.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鰍也是魚)>는 농민공이 주인공이지만, 도시로 들어가 일하는 것은 단지 배경일 뿐, 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농민공의 애정이야기이다. 농민공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그들의 감정은 심지어 시적이고 유미주의적 이기도 하다.<sup>14)</sup>

실제로 양야저우(楊亞洲) 감독은 이 영화가 단순한 농민공의 삶만 그

12) 중국 민공, 농민공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로는 지아장커(賈樟柯)의 <소무(小武), 1997> <세계(世界), 2004>, 왕샤오화이(王小帥)의 <천국까지 그렇게 가까이(扁擔·姑娘), 1998>, <북경자전거(十七歲的單車), 2000>, 리양(李楊)의 <맹산(盲山), 2007> 등을 들 수 있다.

13) 리양(李楊)의 <맹정(盲井), 2003>의 시나리오를 류칭방(劉慶邦)의 신목(神木)을 각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맹정은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하였다. 양야저우(楊亞洲)의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鰍也是魚), 2006>는 제 18회 도쿄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예술 공헌상을 수상하였다.

14) “ <泥鰍也是魚>以農民工爲主角，農民工進城打工，只是一個背景，我的片子主要講的是民工的愛情故事，民工也尊嚴，也有感情，他們的感情甚至也可以是詩意的，唯美的。”楊亞洲，<在真實和藝術間找平衡>(2005.11.5)，《金羊網》  
[http://www.ycwb.com/gb/content/2005-11/05/content\\_1013885.htm](http://www.ycwb.com/gb/content/2005-11/05/content_1013885.htm)

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농민공의 인간적 감정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고 작품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먼저 두 영화의 스토리 전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맹정(盲井), 2003>의 주인공인 탕차오양(唐朝陽)과 송진밍(宋金明)은 탄광의 농민공이다.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지하갱도에서 노동을 하며, 보상금을 노리고 동료를 살해한다. 그리고 그 돈을 고향에 부치고 또 다른 탄광으로 이동해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할 계획을 세운다. 우연히 그들의 범행 대상이 된 어린 농민공은 아이러니 하게도 그들이 살해한 동료의 아들 위엔펑밍(元鳳鳴)이다. 위엔펑밍(元鳳鳴)은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났던 아버지가 반 년 넘게 소식이 없자 동생의 학비도 벌고 아버지를 찾고자 도시의 인력시장을 서성이다 그들과 함께 탄광으로 향하게 된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는 것을 주저하는 송진밍(宋金明)을 못마땅하게 여긴 탕차오양(唐朝陽)은 탄광 속에서 송진밍(宋金明)을 죽이려하나 결국 둘 다 갱도에 갇혀 죽게 되고 위엔펑밍(元鳳鳴)은 그들의 목숨 값으로 6만 위안을 받고 화장터의 굴뚝을 올려다보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리양(李楊) 감독은 이 영화의 사실적 장면묘사와 극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로 4개월간 광산에서 광부들과 같이 생활하고,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의 모든 광부들이 한명 혹은 몇 명의 친지나 친구를 광도에 묻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고 한다.<sup>15)</sup>

또한 영화의 침부터 끝까지 음악적 효과, 인위적 조명을 쓰지 않았고, 어떤 촬영상의 기교도 쓰지 않았다. 마치 한 편의 사건현장보도나 한편의 다큐멘터리와 같이 잔혹하면서도 어둡고 습한 탄광의 현실생활을 냉정하면서도 날카롭고 예리하게 서술하였다.<sup>16)</sup>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위엔펑밍(元鳳鳴)을 비롯한 다수의 연기자들을 연기가 아닌 비전문배

15) “李楊說，在他4个多月的前期調研当中，和礦工一起下井，吃飯，聊天。幾乎每个礦工都能說出，一个或幾個熟悉的親人或朋友，被埋在井下的故事。” 張立潔，〈李楊，盲井之下人性稀薄〉，〈三月風〉02 (2007)，27쪽.

16) “<盲井>全片總斗到尾沒有音樂，沒有刻意的造型光，沒有花招，它更像是一篇‘揭黑報道’，或是一部紀錄片，它制造出與現實生活一樣的氛圍，殘酷而又陰暗，敘述則冷靜而又尖銳。” 張立潔，〈李楊，盲井之下人性稀薄〉，〈三月風〉02 (2007)，27쪽.

우를 기용하여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촬영형태나 배우들에 대한 기용은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NeoRealism)<sup>17)</sup> 영화의 영향을 받은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요즘 배우들은 대개 얼굴이 반반해서 농민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1940~50년대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비전문배우를 기용하는 건 비슷한 맥락이다.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전문배우나 비전문배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캐릭터가 농민이라면 그 연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다.<sup>18)</sup>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鰌也是魚), 2006>의 여주인공은 남편과 이혼하고 고향인 산시성(陝西省)을 떠나 쌍둥이 딸을 데리고 대도시 북경으로 나와 생활하는 농민공이다. 북경으로 오는 기차 안은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향하는 농민공들로 가득하다. 남, 여 주인공은 공교롭게도 泥鰌(이하 미꾸라지<sup>19)</sup>)라 호칭)로 불려진다.

17) 네오리얼리즘(NeoRealism) : 전후 이탈리아의 피폐한 상황과 극심한 가난을 배경으로 현실을 꾸밈없이 솔직히 드러내는 사실주의 영화이다. 그것이 영화 역사에서는 종래의 사실주의보다 더 사실적인 새로운 사실주의라 하여 ‘네오리얼리즘(NeoRealism)’이라고 부른다. 이들 영화들은 극영화이긴 하지만 거의 기록영화에 가까운 정도로 사실적이다. 사실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비 직업배우들과 직업배우들을 혼합하여 쓰는 새로운 연기법을 구사했다. 대표적으로, 비토리아 데시카(Vittorio De Sica)의 <자전거도둑(Ladri Di Biciclette) 1948>, <구두닦이(Sciuscia) 1946>, 로베르토 로셀리니(Roberto Rossellini)의 <무방비 도시(Roma Città Aperta) 1945>, <파이잔(Paisan) 1946>, 루키노 비스콘티(Luchino Visconti)의 <흔들리는 대지(La Terra Trema) 1948>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 6세대 영화인들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사회문제들의 영향에 대한 고찰을 추구하는 네오리얼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촬영 기법이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받았다. 정재형, 《영화 이해의 길잡이》(서울, 개마고원, 2003년), 274쪽에서 인용.

18) 문석, <“순수했던 사람들의 인성이 변하는 모습을 그렸다.”- 리양 감독 인터뷰>, 《씨네 21》(2007.10.10) 인터뷰 중 발췌, www.cine21.com

19) 미꾸라지(泥鰌)는 중국에서 신분이 낮은 사회 하층민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조준현, 《영화로 읽는 중국 역사와 경제》(부산:도서출판 오름, 2009), 138쪽.

공사현장의 인력을 조달하는 남자 미꾸라지와 여자 미꾸라지는 나란히 북경의 고궁 개보수 공사현장이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고, 힘든 노동이 시작된다. 여자 미꾸라지는 쌍둥이 딸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노동을 하게 되고, 남자 미꾸라지는 이런 여자를 동정한다. 이 장면에서 감독은 핸드-헬드(hand-held) 기법을 이용해 시종일관 바쁘게 뛰어다니는 여자를 잡는다. 공사현장의 배식시간에 숨겨놓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만두를 들고 뛰는 모습에서 여자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와 강한 모성애를 잘 드러냄과 동시에 꺾박하고 고단한 농민공의 현실을 잘 담아내고 있다. 여자는 각종 성희롱과 가계부양의 고통 속에서 남자 농민공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되고, 남자 미꾸라지는 끊임없이 여자 미꾸라지에게 치근덕거리고 잠자리를 요구한다. 그때마다 여자 미꾸라지는 “부야오꺼리옌(不要個臉)”을 외친다. 영화 속의 핵심대사이기도 한 이 말은 이후 임금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사장을 찾아 갔을 때도 나타난다. 여자는 남자의 진심을 점점 받아들이게 되고 남자 미꾸라지의 소개로 가사 도우미와 같은 좀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여사장의 횡포와 병을 간호하던 할아버지가 죽으며 일을 그만두게 되고, 남자 역시 공사장에서 쫓겨난다. 둘은 도시의 하수도 청소 일을 하게 된다. 둘은 가까워지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보지만 남자 미꾸라지의 죽음으로 영화는 마무리 된다.

양야저우(楊亞洲) 감독은 이 영화의 스토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많은 복선을 제시한다. 여자의 쌍둥이 딸들이 아파서 남자 미꾸라지를 찾아오는 장면, 그리고 아이들이 술과 담배를 남자에게 보내오는 장면에서 남, 여 주인공의 관계가 변화하고 발전 될 것임을 암시한다. 또 여자 주인공이 인력공급 책임자인 남자주인공이 임금체불로 인해 농민공들에 구타당하고 대신해서 사장에게 체불된 임금을 받으러 가는 장면과 농민공들에게 임금지불에 대한 보증을 서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여자가 이미 남자와 한 가정을 꾸릴 결심을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허름한 집의 전등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장면에서 남자주인공이 만지면 불이 꺼지고, 여자 주인공이 손대면 켜지는 장면에서는 남자의 죽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여자 주인공이 힘겨운 삶 속에서 희망의 미래를 개척



하려는 끈질긴 생명력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다. 남자의 죽음과 그를 덮어주던 담요에 적힌 ‘囍’ 자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두 영화의 스토리 전개를 바탕으로 두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농민공들의 삶의 현장과 비참한 생활, 인물간의 갈등요소, 비극적 죽음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두 영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탄광과 대도시 북경의 건축현장이다. <맹정(盲井), 2003>의 첫 장면은 농민공들이 어두운 지하 탄광에서 고된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으로 진행된다. 잠깐의 휴식시간에 담배한대를 나누어 피고 물 한잔 나누어 마시는 모습에서 그들의 노동이 고되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다. 또한 줄 하나에 의지한 간이 엘리베이터기구를 타고 광도 속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통해 그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나타나고 화면 속 탄광내의 칙흑 같은 어둠은 농민공들의 어두운 현실을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노동의 대가에 비해 저임금을 감수해야 하고, 죽음조차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는 암울함과 절망감이 곳곳에 서려 있다.

<표1>에서 나타나듯이 아직도 농민공들의 임금은 대도시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그마저도 체불되어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표1: 지역별 농민공 월평균 소득<sup>20)</sup>>

(단위 : 위안, %)

	2008年	2009年	증감	증가율
전국평균	1340	1417	77	5.7
동부지역	1352	1422	70	5.2
중부지역	1275	1350	75	5.9

20) 황경진의 <2009년도 중국농민공의 취업실태>, 《국제노동브리프》, (2010.6)에 의하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2009년도 7월 29일 발표에 의하면 2009년도 상반기의 도시 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은 약 2,440위안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2009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에서 볼 수 있다. [http://www.stats.gov.cn/tjfx/fxbg/t20100319\\_402628281.html](http://www.stats.gov.cn/tjfx/fxbg/t20100319_402628281.html)

서부지역	1273	1378	105	8.3
------	------	------	-----	-----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鰍也是魚), 2006>에서는 남, 여 주인공인 미꾸라지가 북경의 고궁 공사현장에서 고된 노동을 시작하며 스토리가 전개된다. 공사현장의 임시막사에서 아무렇게나 잠들어 있는 농민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 고된 생활이 화면 속에서 고스란히 잘 나타난다.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도시 농민공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 장면과 관련해 필자는 실제로 상해에서 유학하던 시절 지하철 공사에 고용된 농민공들의 모습을 매우 가까이서 보았고, 그들의 숙소와 그들의 힘겨운 생활을 직접 보았기에 매우 와 닿기도 한 장면이었다.)

남자는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고 공사장에서 쫓겨나고, 여자도 공사장을 나와 늙은 노인을 병간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지만 그만두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며 두 주인공은 도시의 지하하수도에서 일을 하게 된다. 남, 여 미꾸라지는 대도시의 어둡고 습한 하수도에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힘든 노동을 견디며 살아간다. 남들이 모두 꺼려하는 일이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꿈꾸는 소박한 가정을 꾸리기위해서 힘든 노동을 견디어 내는 농민공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장면이다. 역설적으로 이 영화의 제목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鰍也是魚)>를 가장 잘 표현하는 장면이라 보여 진다고 할 수 있다. 농민공들은 어둡고 습하고 지저분한 도시의 밀바닥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미꾸라지로 대변되고 있다. 양야저우(楊亞洲)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미꾸라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한 생명력을 지닌 미꾸라지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 속에서 살지만, 물 밖으로 나와 땅에서도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고기입니다.<sup>21)</sup>

21) “主要是泥鰍那種頑強的生命力感染了我。從小我就知道泥鰍是在水里生活的，但如果它離開了水在土地上也活很長時間。是一種很耐活的動物。” 楊亞洲，〈大家都是泥鰍，我不喜歡拍埋怨社會的東西〉(2006.4.13)，《北京娛樂信報》，[www.stardaily.com.cn/view.asp?id=197642](http://www.stardaily.com.cn/view.asp?id=197642)

사실 우리 모두 미꾸라지입니다. 나는 생활 속에서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캐릭터 찾기를 좋아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것은 모두 즐겁고, 희망적인 것을 추구합니다.<sup>22)</sup>

양야저우(楊亞洲) 감독은 “미꾸라지도 고기다”란 제목에서 비록 사회의 소외계층인 농민공의 신세가 되어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강한 생명력을 가진 농민공들도 중국정부가 내세우는 조화사회의 일원임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영화 속에서는 농민공들의 의·식·주생활, 즉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얼마나 초라한지 가감 없이 잘 드러난다. 남루한 옷차림과 그저 끼니를 때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초라한 음식들, 그리고 임시막사로 만들어진 거처를 통해서 농민공들의 생활이 기본적인 사회보장 따위는 애시 당초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영화 속에서 여실히 보여준다.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鰍也是魚)>에서 주인공 여자 미꾸라지의 쌍둥이 딸이 아파서 남자 미꾸라지를 찾아오는 장면에서 남자 미꾸라지가 만병통치약이라 내미는 빨간 알약은 역설적으로 기본적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농민공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며, 이후 빨간 알약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남자의 죽음장면을 통해서도 중국정부의 의료보험체계에 대한 감독의 간접적인 비판의 시각이 잘 나타난다. 중국정부의 농민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두 영화는 농민공들의 비참한 현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인 농민공 2세의 모습 또한 영화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 <맹정(盲井)>에 어린 농민공 위엔펑밍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도시로 일을 하러 나오게 되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아버지를 죽인 송진밍과 탕차오양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기차역 광장에 일거리를 찾기 위해 모여 있는 위엔펑밍과 농촌을 떠난 수많은 농민공들의 모습은 오늘날 G2 경제대국의 위치에 올라선 중국정부의 조화사회와 과학적 발전 구호가

22) “其實我們每個人都是泥鰍，我喜歡在生活尋找這種有生命力，鮮活的角色。如果仔細看你會發現，我的作品里表現的都是些內心光明，追求陽光的内容。” 楊亞洲 <大家都是泥鰍，我不喜歡拍埋怨社會的東西>(2006.4.13), 《北京娛樂信報》, [www.stardaily.com.cn/view.asp?id=197642](http://www.stardaily.com.cn/view.asp?id=197642)

아직까지는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鰍也是魚)>에서도 여자 미꾸라지의 어린 쌍둥이 딸들이 북경의 거리에서 불법복제 DVD를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농민공 2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육아혜택과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리에 방치되어 올바른 가정환경 속에서 양육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농민공 2세들에 관한 문제는 중국이 풀어야 할 미래의 고민거리임을 두 감독은 영화를 통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맹정(盲井)>의 한 장면인 “학교 안가고 왜 일하러 왔냐”는 송진밍의 말에 “학교 갈 돈이 없어요”란 위엔펑밍의 답답한 대답은 비참한 농촌의 모습과 어린나이에 농민공이 될 수밖에 없는 중국사회의 ‘3농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농촌의 인력난 부족현상은 다른 장면에서도 잘 나타난다. 탄광 속 휴식장면에서 집을 떠나와 고향에 있는 부인을 그리워하는 동료에게 “만약에 부인이 바람이라도 피우면 어떻게 할꺼냐” 묻자 “마을남자들은 모두 일하러 떠났다”는 남자의 무덤덤한 대사는 중국사회의 심각한 맹류(盲流)<sup>23)</sup>현상에 대해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표2>에서 나타나듯 폭발적인 증가추세는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농민공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고향에 머무르는 농민공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2 : 농민공의 규모 변화 추이<sup>24)</sup>>

(단위: 만 명, %)

23)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작정 도시로 흘러 들어오는 맹류(盲流)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경제성장과 소득급증에 비해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뒤로하고 무작정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4) <2009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를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농민공의 규모변화 추이, 유동 및 취업지역 분포, 소득수준과 증가율, 5대 사회보험 가입률 등이 자세히 보고되어 있다.

[http://www.stats.gov.cn/tjfx/fxbg/t20100319\\_402628281.html](http://www.stats.gov.cn/tjfx/fxbg/t20100319_402628281.html)

	2008年	2009年	증감	증감률
농민공 전체 수	22542	22978	436	1.9
외지에 취업한 농민공의 수	14041	14533	492	3.5
단신 이주 농민공의 수	11182	11567	385	3.4
가족동반 이주 농민공의 수	2829	2966	107	3.7
고향에 취업한 농민공의 수	8501	8445	-56	-0.7

두 영화는 모두 마지막에 농민공들의 비참한 죽음을 그리고 있다. <맹정(盲井)>의 두 주인공인 탕차오양(唐朝陽)과 송진밍(宋金明)은 모두 어두운 탄광 속에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 장면에서 감독은 돈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무시되고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당대 중국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鰱也是魚)>에서도 남자 미꾸라지는 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동료를 병원으로 데려오지만 대도시 큰 병원 의사들의 무관심과 큰 문턱에 좌절감을 느끼며 자신 또한 병원벤치에 누워 죽음을 맞이한다. 감독은 현대식 병원건물과 지나가는 말끔한 옷차림의 사람들과 대비되는 지저분한 남자 주인공의 차림새, 즉 농민공의 낡은 옷차림과 지저분하고 고단한 모습을 도시인들의 삶과 대비시킨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며 손에서 떨어져 흩어지는 빨간 알약들은 대도시에 주변인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농민공들의 좌절감을 대변해주는 장면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장면에서 감독은 땅에 떨어져 흩어져있는 빨간 알약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당대 중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자본주의병폐 속에 사라져가는 인간본성에 대한 시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영화는 모두 고속성장을 질주하고 있는 오늘날 중국사회의 아픈 그늘을 농민공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있다. 중

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농민공이지만 도시의 중심에서 배제되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사라져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두 감독은 때로는 안타깝게, 때로는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먼저 리양(李楊)의 <맹정(盲井)>에서는 중국적 자본주의에 대한 병폐와 그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그로인해 사라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잘 드러난다. 돈 이면 무엇이든 되고 돈을 위해 못할 것이 없는 잔혹한 인간의 본성과 중국사회에 만연한 부패들이 등장한다. 송진밍과 탕차오양은 탄광에서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친척으로 위장해 목숨 값으로 3만원을 받아낸다. 살해 장면 역시 잔인하기 그지 없지만 화장한 시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허름한 여관의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회파람을 불며 물을 내리는 장면과 죽은 동료의 신분증을 태워 담뱃불을 붙이는 장면은 중국사회에 만연한 사라진 인성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돈 앞에서 버려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발과 동시에 하층민이 같은 하층민에게 가하는 살인과 억압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하층민의 현실은 더 절망적이고 어둡고 비극적이다.<sup>25)</sup>

두 번째 범행대상인 위엔핑밍은 그들이 죽였던 동료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인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탕 차오양의 모습은 일말의 인성조차 남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들이 목숨 값으로 받은 돈을 집으로 부치고 아들의 학교성적을 걱정하는 장면 또한 자본주의가 만연한 중국사회에 살아가는 농민공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들의 일터인 탄광의 사장 역시 돈으로 죽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송진밍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자 그의 부하직원의 “둘 다 죽여 버려요”란 대사 또한 자본주의의 병폐에 찌들어 오로지 돈만이 가치가 되는 중국의 현실사회에 사라진 인성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찰서의 인맥에 대한 탄광사장의 대사인 “그 놈들은 돈 밖에 몰라”, “10만 위안도 모자라”란 대사에서도 현재 중국 관료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단적

25) 신동순, <당대 중국 사회의 ‘盲’과 ‘不盲’사이에서 리양(李楊) 영화 읽기>, 《中國現代文學》51(2009.12), 136쪽.

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동료의 목숨 값으로 가라오케에서 유흥을 즐기는 송진밍과 탕차오양 그리고 그들을 접대하는 허름한 가라오케의 여종업원, 그들은 모두 농촌을 떠나 돈을 벌기위해 도시로 온 농민공이다. 각자의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겠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오로지 ‘돈’이다. 이 장면에서 감독은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해 노래로서 꼬집고 있다. 탕차오양이 부르는 노래 “사회주의여 영원 하라” 에서 여종업원은 “사회주의여 영원 하라” 가사는 구식이라며, “반동주의는 결코 전복되지 않고 자본주의자들은 미국달러를 가지고 돌아 왔네”. 로 가사를 요즘식이라며 바꿔 부른다. 감독은 이 노래를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하의 중국이지만 자본주의 보다 더 자본주의적 병폐가 만연한 중국사회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가한다.

영화 곳곳에 나타나는 중국사회의 부패와 위조, 기만행위 등,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당대 중국사회의 병폐를 꼬집고 있다. 위엔핑밍을 탄광에 취업시키기 위해 쉽게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길거리에는 가짜로 고학생 행세를 하며 구걸을 하는 모습과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부패한 관료 등, 리양(李楊) 감독은 영화 내내 중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내 영화는 사회를 비판하는 작업이다. 물론 이것은 다큐 작업을 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내가 만든 두 편 모두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시장 개혁 이후 중국의 사회문제를 다뤘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가면서 새로운 종류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두 영화는 공히 이 과정에서 인간성의 나쁜 측면을 다뤘다.<sup>26)</sup>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鰍也是魚)>에서는 좀 더 도시 농민공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공사장의 인력공급 책임자인 남자 미꾸라지는 농민공들의 임금 체불로 인해 그들로부터 구타를 당한다. 영화 속 농민공들은 “반년이나 임금을 지불 받지 못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등의 호소를 한다. 농민공들의 임금체불문제가 얼마나 심각

26) 문석, <《눈먼 산》의 리양 감독>, 《씨네 21》(2007.6.14), www.cine21.com, 인터뷰 중.

한지 잘 알 수 있는 장면이다.

또한 이 영화에서 여자 미꾸라지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야오꺼리엔(不要個臉)”이란 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화의 앞부분에서 이 말은 자신에게 치근덕대는 남자에게 얹치도 없는 인간, 인간이기를 포기한 등의 의미로 쓰이는데, 후에 공사현장의 사장에게 체납된 임금지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장의 행패에 굴욕을 당하는 장면에서도 이 말을 하게 된다. 감독은 이 장면에서 대도시의 자본주의적 병폐에 찌든 시각을 잘 보여준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농민공은 그저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고, 악덕사장과 부패와 각종 부조리가 만연한 중국의 현실에 대해 꼬집는 말로 “부야오꺼리엔(不要個臉)”을 쓰고 있다.

병간호를 했던 노인이 죽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여자 미꾸라지를 대하는 여자사장의 태도에서도 도시의 중산층 사람들이 농민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삭막하고 그들을 무시하는지 잘 드러난다. 대도시의 주변인으로 몰린 도시의 소외계층이자 하층민인 농민공의 중국내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두 영화에서는 모두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드러나는 인간의 본능적 성적욕망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대도시의 화려한 유흥시설은 아니라도 <맹정(盲井)>에서 송진밍과 탕차오양은 동료들을 죽이고 생긴 돈의 대부분을 송금하고 허름한 가라오케에서 아가씨들과 시간을 보낸다. 위엔핑밍이 허름한 숙소안의 벽면에 붙어있는 신문지 뒤로 보이는 여자사진을 힐끔힐끔 몰래보고 있는 장면에서 그 나이또래 도시학생들이 누리는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순박한 위엔핑밍의 모습은 애처로움마저 드는 장면이다.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鰍也是魚)>에서도 젊은 농민공이 여자 미꾸라지를 추행하려는 장면이 등장한다. 두 영화에서 모두 절박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감독은 농민공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욕망을 지녔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조화사회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민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영화 속에서 두 감독은 중국사회의 절대 소외계층인 농민공들의 절



망적인 상황을 그려내면서도 그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피력하고 있다.

<맹정(盲井)>에서 우리는 주인공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기본적인 인성조차 없는 잔혹한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책을 가까이 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이를 돕고자 하는 위엔펑밍의 모습과 자신을 죽이려 계획하는 두 삼촌들에게 첫 월급으로 닭을 잡아 대접하려 했던 모습에서 미래의 농민공, 장차 농민공이 될 젊은이들이 교육에 대한 열망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며 중국사회에 일원이 되기를 감독은 희망하고 있다. 리양(李楊) 감독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흔들리는 가치관에 관한 문제들을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사라진 인성을 비판했고, 이를 극복하고 중국사회가 21세기의 중심 국가이자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 절대적이라 보고 있다. 그것을 위해 리양(李楊) 감독은 영화를 통해 끊임없이 중국사회에 대해 비판 작업을 실현하고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하루빨리 농민공과 같은 하층계급들도 중국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조화사회를 건설해달라는 감독의 바람이지 않을까.

영화 <맹정(盲井)>은 이러한 감독의 비판의식과 참혹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농민공들의 꺾박한 삶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鰍也是魚)>의 마지막 장면은 하얀 눈이 내리는 공사현장에서 여자 미꾸라지가 농민공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나누어주는 장면이다. 그들은 여자 미꾸라지에게 고마움과 함께 그들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희망을 전한다. 행복한 가정과 편안한 보금자리로서의 ‘집’을 간절히 원했던 두 미꾸라지의 꿈은 이루어 질 수 없지만, 열렬히 환호하는 농민공들을 뒤로하고 여자 미꾸라지는 두 딸을 데리고 길을 나선다. 비록 함께 할 것을 약속했던 남자 미꾸라지는 죽었지만 여자 미꾸라지의 미래는 사당 위에 쌓인 새하얀 눈처럼 화면 가득 하얀 희망과 온정으로 끈질긴 생명력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농민공을 그리고 있다. 양야저우(楊亞洲) 감독은 농민공들이나 하층시민의 가장 큰 갈망은 돈이나 화려하고 풍요로운 생활이 아

닌 결국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영유하는 ‘家’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서 ‘家’란 사랑과 따뜻함이 있는 ‘가정’을 의미 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야저우(楊亞洲) 감독은 이러한 농민공들의 껍박한 삶 속에서 따뜻한 인간미와 온정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중국 농민공들의 이상향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의의로 비추어 볼 때, 영화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鰍也是魚)>는 진정으로 중국 농민공들을 이해하며 표현한 영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중국 농민공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두 영화는 중국 농민공들의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한편 오늘날 당면한 중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농촌을 떠나와 오로지 돈을 벌기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을 행하는 농민공들의 모습 속에서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적 병폐가 만연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비인간적인 모습이 만연한 중국사회의 현실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중국영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국식 블록버스터 대작영화나 주선율(主旋律)<sup>27)</sup>영화가 중국사회가 당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두 편의 영화는 중국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잘 그려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이다.

<맹정(盲井)>이 돈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기본적인 인성조차 없는 냉혹한 농민공의 모습 속에서 이 사회의 인성회복을 외치고 있다면,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鰍也是魚)>에서는 좀 더 따뜻하고 인간미 있는 농민공의 모습과 그들의 소박한 꿈을 이룰 수없는 안타까운 사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7) 주선율(主旋律)이란 국가나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태도 혹은 논리를 지칭하는데 오늘날 주선율 영화는 상업성과 결합하여 대작의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용철의 <현대중국의 주선율 영화와 독립 다큐멘터리: 장르의 형성과 국가의 역할>, 《비교문화연구》14:1, 2008, 185~218쪽과 박춘식의 <주선율영화의 궤적분석>, 《中國語文學》53(2009.6), 241~261쪽을 참고할 것.

오늘날 중국의 농민공수는 약 2억2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퍼센트를 차지한다.<sup>28)</sup> 중국정부는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증가추세에 있는 농민공문제의 해결과 권익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58년부터 실시해온 전국적으로 이원화된 도시호구와 농민호구를 2007년에 하나로 합쳐 ‘거주민 호구’로 바꾸기로 하였고, 1997년 6월 중국국무원은 소도시에서 합법적으로 비농업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안정된 생활수입원을 갖고 있고 합법적인 고정 주소지에서 만 2년간 거주한 농촌호구 소지자는 도시 상주호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비준을 거쳐 소도시에 정착한 농민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누리게 되었다.<sup>29)</sup> 또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조치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농민공들은 중국 노동법에 명시된 노동시간보다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고, 각종 사회보험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농민공들은 사회보험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0)</sup> 또한 농민공의 저임금은 노사갈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저임금으로 인한 집단파업, 태업, 이직 등의 악영향을 초래하면서, 노사 간의 불신감을 조성하였으며, 노무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sup>31)</sup>

오늘날의 중국은 세계경제의 강국이자 중심이 되고 있다. 양적성장보단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적극적인 해외투자와 선진기술들을 중국의

28)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지음, 《2010~2011 차이나 트렌드》(서울: 중앙북스, 2010), 26쪽.

29)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봉진의 《중국지역연구와 현대중국의 이해》(부산, 도서출판 오름, 2007), 243~244쪽을 참고할 것.

30) 황경진, <2009년도 중국농민공의 취업실태>, 《국제노동브리프》, (2010.6)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농민공의 월평균 노동일수는 26일, 주평균 노동시간은 58.4시간으로 나타났고, 이 중 노동시간이 ‘노동법’에서 규정한 44시간을 초과하는 농민공의 비율은 89.9%로 여전히 장시간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다. 또한 중국의 각종 노동관련 법규는 농민공도 사회보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5대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양로보험이 7.6%, 산재보험 21.8%, 의료보험 12.2%, 실업보험 3.9%, 생육보험 2.3%로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농민공은 사회보험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로 밝혀지고 있다.

31) 이성규, <중국 농민공의 고용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12) 32쪽.

것으로 만들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의 둔화는 수출 성장세의 발목을 잡았으며, 경제위기에 따라 기업의 대량연쇄부도가 발생하고, 대량의 실업이 발생했는데 이들 실업자의 대부분이 농민공이라는 점이며,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들은 사회 불안세력인 동시에 안정적 사회질서의 직접적 위협세력이다.<sup>32)</sup>

하지만 이러한 중국경제의 뒤편에 소외되고 있는 농민공들은 진정한 중국경제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조화사회와 과학적 발전을 부르짖는 중국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농민공에 대해 어떠한 정책과 지원을 펼치고, 차별을 해소할 것 인지 관심 있게 지켜 볼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농민공을 소재로 한 또 다른 영화가 제작된다면 좀 더 나아진 도시의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서민의 모습과 애환을 다룬 영화가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주선율의 구호아래 점점 나아지는 농민공들의 생활을 묘사하는 영화가 아니길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건 오늘날 중국 영화계를 바라보는 당연한 시각이 아닐까.

### [참고문헌]

- 강준영 외, 《중국 속의 중국 - G2시대: 중국발전의 빛과 그림자》, 서울:도서출판 대선, 2010.
- 공봉진, 《중국지역연구와 현대중국의 이해》, 부산:도서출판 오름, 2007.
- 이민자, 《중국 農民工과 국가-사회 관계》, 서울:나남출판, 2001.
- 정재형, 《영화 이해의 길잡이》, 서울:개마고원, 2003.
-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지음, 《2010~2011 차이나 트렌드》, 서울:중앙북스, 2010.
- 조준현, 《영화로 읽는 중국 역사와 경제》, 부산:도서출판 오름, 2009.
- 문석, <《눈먼산》의 리양감독>,《씨네21》(2007.6.14), www.cine21.com

32) 강준영 외,《중국 속의 중국 - G2시대: 중국발전의 빛과 그림자》(서울: 도서출판 대선, 2010) 201-202쪽

- 문 석, <“순수했던 사람들의 인성이 변하는 모습을 그렸다.”- 리양 감독 인터뷰>, 《씨네 21》(2007.10.10), [www.cine21.com](http://www.cine21.com)
- 박춘식, <주선올영화의 궤적분석>, 《中國語文學》53, 2009.6.
- 이성규, <중국 농민공의 고용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12.
- 이성철, 이치한, <조화사회와 농민공의 현실>, 《중국연구》45, 2010.1.
- 이웅철, <현대중국의 주선올 영화와 독립 다큐멘터리: 장르의 형성과 국가의 역할>, 《비교문화연구》, 14:1, 2008.
- 신동순, <당대 중국 사회의 ‘盲’과 ‘不盲’ 사이에서 리양(李楊) 영화 읽기>, 《中國現代文學》51, 2009.12.
- <수퍼파워 중국의 內面을 읽다, (3)사회갈등의 핵, 농민문제>, 《조선일보》, 2011.1.11.
- [http://www.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11/2011011102240.html](http://www.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11/2011011102240.html)
- 황경진, <2009년도 중국 농민공의 취업실태>, 《국제노동브리프》, 2010.6.
- 孔海洋, <電影《泥鰱也是魚》的審美文化分析>, 《溫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5, 2007.9.
- 楊亞洲, <大家都是泥鰱, 我不喜歡拍埋怨社會的東西>, 2006.4.13. 《北京娛樂信報》, [www.stardaily.com.cn/view.asp?id=197642](http://www.stardaily.com.cn/view.asp?id=197642)
- 楊亞洲, <在真實和藝術間找平衡>, 2005.11.5. 《金羊網》
- [http://www.ycwb.com/gb/content/2005-11/05/content\\_1013885.htm](http://www.ycwb.com/gb/content/2005-11/05/content_1013885.htm)
- 張立潔, <李楊, 盲井之下人性稀薄>, 《三月風》02, 2007.

### <中文提要>

通过中国电影中农民工的生活来看中国社会考察

- 以<盲井>, <泥鰱也是鱼>为中心 -

改革·开放以後中国经济越来越发展。其中离开农村为了赚钱的‘农民工’是现在中国社会最大的问题。在中国的电影市场中, 可能很少有个导演会

选贫民的角度来讲故事，而杨亚洲和李杨就是其中的导演。他们所想表达的都是那些贫民的穷乏生活，在社会最低层人群的现实生活。李杨的〈盲井，2003〉和杨亚洲的〈泥鳅也是鱼，2006〉是通过对小人物细碎悲喜的刻画，传达了这个时代的情绪，通过对农民工爱情悲剧的透视，折射出这个时代的困境。所以两片电影的内容很真实很淡白，在他们的电影里体现出来的都是真实的中国当代社会边录的人物，底层的生活。本文是通过两片电影的内容，分析当代中国社会农民工的问题。总这个意义上讲，两片电影真正理解了当下中国的‘农民工’群体。

**关键词：** 农民工    李杨    〈盲井〉    杨亚洲    〈泥鳅也是鱼〉    主旋律

투 고 일 : 2011.2.28 심 사 일 : 2011.3.10~4.10 게재확정일 : 2011.4.20
--